

21. 목공 및 소각 근로자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성별 남 **나이** 71세 **직종** 목공 및 소각 **업무관련성** 낮음

1. 개요: 안○○은 1974년부터 D요업에서 목공 및 소각 작업을 한 후 2004년 3월 M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안○○은 1974년 1월 1일부터 1992년 8월 31일까지 목공실에서 등근 톱으로 각목 및 판자 등 목재를 절단하여 제품 제작용 틀과 파레트를 제작하여 페인트를 칠하였다. 1994년 2월 27일부터 2004년 2월 14일까지는 오전 8시 출근하여 소각로 재를 치우고 나서 오전 9시부터 하루 6~7.5시간 정도 소각로를 가동하여 종이, 목재, 합성수지, 합성고무, 폐유, 폐섬유 등을 소각하였다.

3. 의학적 소견: 2004년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입원한 M병원 순환기내과 의무기록에 의하면 기존에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료를 받다가, 2년 전부터 있던 호흡곤란이 악화되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 입원하였다. 흉부 단순방사선사진에서 양측 흉막비후 소견이, 심전도검사서 과거 심근경색증 소견이, 폐기능검사서 노력성 폐활량(FVC)이 기대치의 39%, 1초량(FEV₁)은 기대치의 28%, 1초율(FEV₁/FVC)이 49%이면서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한 후 FEV₁이 21% 증가하였다. 흉부 고해상도컴퓨터단층촬영에서 중심소엽성 폐기종 소견이 있었다. 2004년 9월 I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실시한 특진 결과 흉부 고해상도컴퓨터단층촬영상 좌하엽의 미만성 중심소엽성 폐기종 소견이 있었고 폐기능검사상 FVC가 기대치의 59%, FEV₁은 기대치의 44%, FEV₁/FVC가 51%이면서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한 후 FEV₁이 9% 증가하였으며 심전도검사상 과거 심근경색증 소견이 있었다. 2004년 11월 I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실시한 특진 결과 관상동맥조영술에서 관동맥 협착증으로 진단되었다. 1990년까지 35년간 18갑년의 흡연력이 있다.

4. 결론: 안○○은

- ①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되었는데,
- ② 과거 수행한 목공 또는 소각 작업 중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곡물 분진이나 유리규산에 노출되지 않았고,
- ③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가장 강력한 원인인 흡연력이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